



도심포교의 중심지로 거듭나며

부산 자석사 신축불사 착수 대지 620평, 건평 412평, 1층 2동

부산 남부지역의 도심포교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소재의 자석사(주교 법상인 전수)가 지난 7월 21일 신축불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자석사는 도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산사의 분위기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 앞으로는 교도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수행도량으로 자리잡힐 전망이다. (관련사설 2면)
대지 620평에 건평 412평의 1층 건물 2동이 새롭게 들어설 자석사는 지난 1976년 3월 창건된 이래 23년 동안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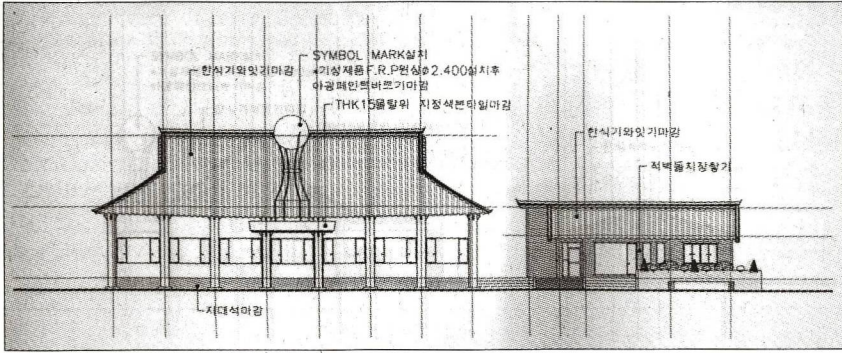
산 남부의 포교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으로, 교도들의 정진과 원력이 충만한 기도도량이다.

앞으로 자석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최우선을 두며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교도들은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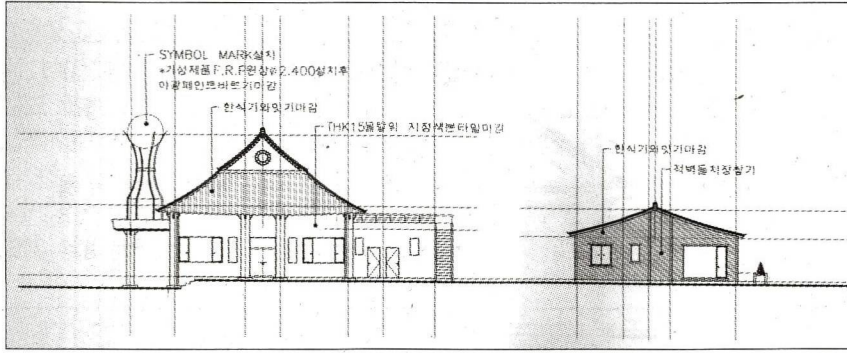
불사를 통해 부산 남부지역의 포교중심지로 거듭날 기대에 부풀어 있다.

현재 기초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내년 4월경 완공될 전망이다.

자석사 신축 설계는 '보성건축사무소'에서 맡았고, 건설업체는 정각사를 건축했던 '(주)영동건설'이다.



▲ 자석사 정면도



▲ 자석사 측면도

소의경전 재역경(再譯經) 등 각종 불사 진행

소의경전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재번역
『종단 불사의계 소고(小考)』 『밀교수행차제법』 등 도서발간

본 종단의 소의경전이 다시 태어났다. 기존의 한글경전을 현대식 어문법으로 고치고, 한문원전을 토대로 재번역했기 때문이다. 이 재역경 불사는 그간 승단에서 기존의 한글번역본 『밀교장경(密教藏經)』이 너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 독송에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해왔고, 또 한글본 『밀교장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국한문 혼용의 고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교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 새롭게 큰 활자로 발간해줄 것을 요청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법장원(원장 효강 대정사)은 지난해 6월부터 한역 소의경전을 역경, 금년 7월 완역하게 되었다. 현재는 중의(證義), 증문(證文), 철문(綴文), 간정(刊定), 운문(潤文) 중에 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 인쇄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글번역은 법장원 박재걸 연구원이 참여(參譯)했고, 중의에서 운문까지의 작업은 효강 법장원장의 지도하에 법장원 연구원들이 매일 하루 두시간씩 마무리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종단에서 봉행하고 있는 '불사의계'의 경전 근거를 탐구하고 더욱 새로운 의례를 발굴하기 위한 불사의계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법장원은 춘·추기 강공회를 통해 몇차례 강의를 하였던 '종단 불사의계 소고'를 더욱 보충하여 책으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작업은 그간 법장원 김홍배 연구원이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근거 자료를 하나하나 찾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 이외에도 승직자와 교도들을 위한 밀교수행법 기본서도 펴낼 계획이다. 이는 밀교수행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삼밀수행법을 승직자와 교

도들이 좀더 행하기 쉽도록 하고 진언행자로서 수승한 의례법을 갖추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들 작

업은 내년 하반기에 집필이 완료될 전망이다.

종조 멀도절 추선불사 봉행

지난 9월 8일, 본산 및 전국사원에서



▲ 멀도절 추선사를 중령 특정 대중사에서 봉독하셨다.

제19주기 종조멀도절 추선불사가 지난 9월 8일 본산 및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본산의 경우는 기로원의 원로스승님을 모시고 서울 경인지구 사원 스승님과 교도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함께 동참하여 본산 총지사 3층 대강당에서 추선불사를 올렸다.

이 날 불사에서 '스승의 사명'에 대한 종조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시듣는 종조법설

밀교란 무엇인가?



▲ 법설을 하시는 종조 원정 대성사

밀교의 삼륜신(三輪身)

불(佛)의 권속은 대별해서 불(佛), 보살(菩薩), 명왕(明王)의 세가지다. 밀교에서는 이 가운데 명왕의 활동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는 전설 한가지를 보면, 「위문장자라는 사람은 재산은 많으나 탐욕이 많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어느 때 밀교 수행대사가 여러 번 그 집에 탁발하러 갔으나 갈 때마다 쫓겨 나고 칠일째 갔을 때는 대릿자루로 치려고 할 때 대사는 손에 들었던 바루로 그를 막았다. 그러자 바루는 여덟 조각으로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부터 장자(長者)의 아들 여덟 형제는 차례로 죽어갔다. 장자는 그 탁발승이 훌륭한 대사를 깨닫고 찾아서 참회하려고 결심하고 사망으로 찾아 다니다가 장삼암에서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에 대사가 나타나서 "죄업도 이제는 다 소멸되

삼륜신 - 자성륜신, 정법륜신, 교령륜신 불보살과 명왕의 활동을 표현

삼륜신이란 자성륜신(自性輪身)과 정법륜신(正法輪身), 교령륜신(敎令輪身)을 말하는 것인데, 자성신(自性身)은 불위(佛位)이므로 지비이덕(智慧二德)을 갖추고, 정법신(正法身)은 보살위(菩薩位)이므로 자비(慈悲)로써 섭수하며, 교령신(敎令身)은 명왕위(明王位)이므로 지혜(智慧)로써 절복(折伏)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불법승(佛法僧)을 비방하고 교단을 해하거나 제도되기 어려운 강강(強剛)한 중생이 있으면 이 교령신이 발동하여 항복을 받는 것이다. 원래 명왕은 불법(佛法)의 수호신(守護神)이기 때문이다. 여기 삼보를 해하면 안되

었으므로 무엇이든지 소원이 있으면 다 이루어지리라 하였다. 이에 장자는 "우리 집은 부호(富豪)의 집인데 이제 대(代)가 끊어지게 되었으니 대(代)를 잇기 위하여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대사는 작은 돌에 위문장자재래(衛門長者再來)라고 써서 오른 손에 쥐어 주었다. 그 후에 위씨(衛氏) 문중에 남자가 태어났으나 왼쪽손을 쥐고 퍼지않으므로 석수사(石手寺)에 가서 손 퍼기를 불공했다. 그러자 왼손이 퍼지고 작은 돌을 쥐고 있었다. 이와같이 불법승을 해하면 큰 화를 입고 교령신에 의해 절복케 된다. 삼보를 공경하고 용맹정진할지이다.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여러분의 정성과 애정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은행지부: 8003478 국민은행: 827-25-0020-943
농협: 069-01-238223 외환은행: 189-13-03929-3

예금주: 불교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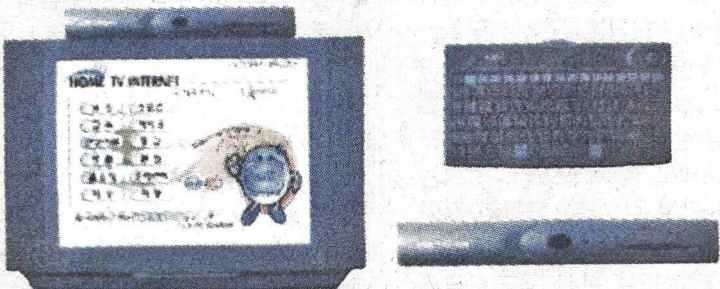
우)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전화: 02-705-5560~1)

광고접수 (02)508-8933

TV로 인터넷을 즐긴다

인터넷,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 누구나 쉽게 TV로 인터넷 향해를 ...

HOME M.I.T. (주) 홈 T V 인터넷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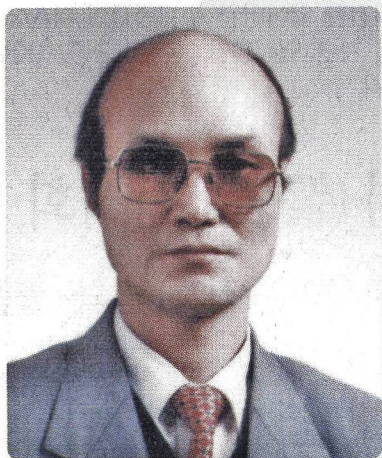


http://mit.home.co.kr

영업·섭외담당/총괄

김 동 운 H.P:018-361-9663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1
(한국통신서울중앙전화국B/D 9층)
대표전화: (02)756-4114
F A X: (02)771-6665
E-mail: kdo0528@hom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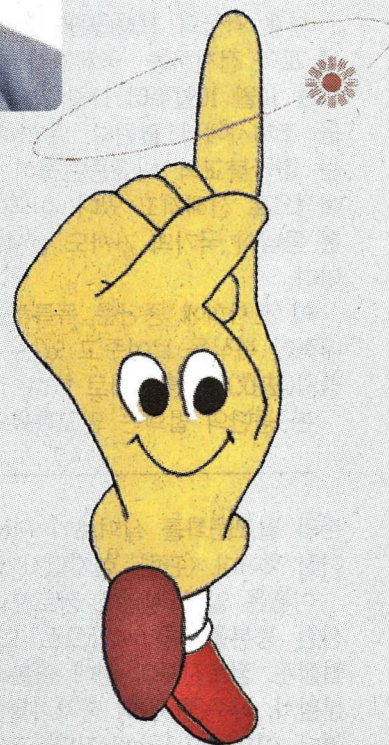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동명대리점/대표

김 동 운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48-1
(기종빌딩 601호)
TEL : (02)2265-9663, 2262-4034
FAX : (02)2262-4039
H.P : 018-361-9663
B.B : 015-8405-9663



보상서비스 품질보증제도 실시
(365일 24시간 보상서비스)

자동차·화재·상해·개인연금
퇴직보험·암보험·재테크·대출상담

社說

자석사 전당불사에 불혀

그간 상당한 심의와 수정 보완을 거듭한 끝에 지난 8월에 완성된 설계를 토대로 드디어 부산 자석사의 전당불사가 착수됐다. 실로 범신비로자나부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크나큰 불사에 온 종도들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다. 이번 불사는 몇가지 점에서 향후 우리 종단의 전당불사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설계과정에서 그간의 전당불사와는 달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그 위에 종단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불사에 대한 이의를 최소화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종단운영에 있어 가장 잠정민 민주적의 사결정을 통한 전체의 참여가 이번 자석사전당불사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다음으로, 공간배치에 있어 불공집전 및 대중동참의 동선을 최소화하여 서원당내에서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배제한 점을 꼽을 수 있다. 한편으로 사택과의 거리도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일정 거리를 두게함으로써 승직수행과 생활의 관계를 적절하게 배려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은 종단 총본산의 경우와는 달리 지역 전법사업에 전념하는 승직자와 종도의 일상적인 만남을 공간적으로 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불사는 애초 상정했던 규모보다는 다소 감소된 것이다. 그것은 불사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역사원의 현실적인 형편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일단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현실의 지역세에 맞추어 일정 규모로 건축하고 이에 추후 사원의 신도수와 사격의 발전을 반영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유경에 이르듯 외형만을 추구하기 위해 3층부터 고집하는 어리석은 장자의 우를 범하지 않고 차근차근 전법의 실내용을 키우고 그에 맞는 전당으로 일구려는 것이다. 근래들어 마치 서로 세력을 자랑하여 신도를 모으려는듯 대형화되는 종교시설물의 폐해를 우리 종단은 범하지 말자는 의지가 담겨있다. 부처님 재세시 지극한 정성과 소박한 마음으로 지어졌던 사원(정사)의 뜻을 반영코자 하였다. 이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 종단의 사원불사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도 없지 않다. 한국불교의 전통을 고려한 사원양식의 반영과 공간배치에 있어 교리 반영이 그러하며, 우리 사원이 몇 십년, 몇 백년 뒤 과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건축물인가 하는 점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번 부산 자석사의 전당불사에 종단은 물론 종도들의 애종심으로 원만회향하기를 서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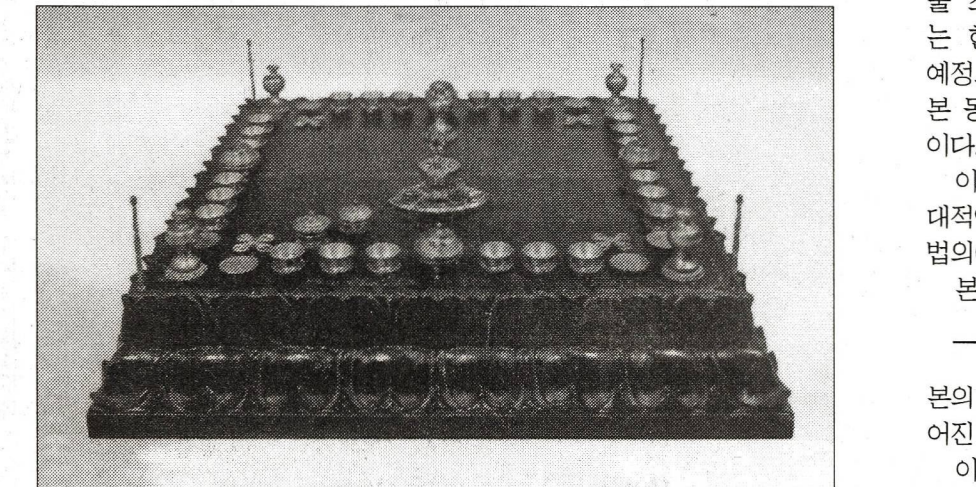
긴급구난구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화가 동반하는 도시화의 팽창은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다. 대단위의 무차별한 개발과 도시에서 쏟아내는 생활오염물은 자연생태계를 근본부터 흔들어 결국 자연의 순환을 고르게 하지 못하여 필연적으로 재앙과 같은 자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적 구조물을 만들고 기상예측 기능을 발달시켜도 돌발적 기상변화에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연례행사화되다시피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특정국가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다만, 선진국일수록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측기술의 발전과 아울러 긴급구난구조체계를 치밀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각국의 수준에 따라 다를 뿐이다. 우리의 경우 지난 94년 삼풍백화점사태를 계기로 긴급구난의 절실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비록 낮은 수준이긴 하여도 긴급구난조직을 만들고 민간차원의 구조단체가 결성,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정책, 조직, 장비, 인적 자원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번 터키의 지진참사에서도 긴급구난체계의 수준이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

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의 각국은 정예긴급구조대를 신속히 터키에 파견, 지진으로 인한 인명구조와 복구를 지원하였고 적어도 지진참사 발생 소식이 전세계에 보도된지 48시간 이내에 미국과 일본 등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도 파견하였다. 한국은 한참 뒤에, 그것도 인명구조가 거의 끝나면 무렵에서야 긴급구조대를 파견하고, 그야말로 뒷북을 치는 정도에 그쳤다. 여기서 우리 종단에 깊이 반추할 점이 있다. 지난 경기북부지방에 연례행사처럼 엄청난 수재를 당하였을 때 정부보다 오히려 민간차원의 구조단체가 발빠르게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불교계 타종단은 즉시 긴급구난대책위를 결성, 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비상식량을 지원하였다.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가급적 빠른 시간내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은 종단의 수준을 가늠해하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종단차원의 노력과 사회복합법의 중요한 사업으로 긴급구난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 혹은 대형시설물의 사고는 정확하게 발생시기를 설정할 수 없지만 그 발생은 항상 개인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철저한 각성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아울러 우리 종단도 그러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일본 밀교문화현지답사’ 6박 7일간의 일정 마쳐

법정원 박계걸 연구원 등, 지난 8월 17일~23일 일정



▲ 일본 중요문화재 양부대단구(兩部大壇具) - 14세기

본 종 법정원 박계걸 연구원과 경북 대학교 최성규 교수(예술대학 미술학과)는 지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밀교문화 현지

국제 가사(袈裟) 전시회 열린다

본종단 『아사리(승직자) 법의』 출품예정

세계 각국의 가사(袈裟)를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국제가사전시회’가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불교의 대표종단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동남아 국가의 가사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 전시회에 종단은 독특하면서 현대적인 복식을 보여주고 있는 ‘아사리 법의(法衣)’를 출품키로 했다. 본 종단의 법의는 밀교특유의 수법

본의 밀교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관련 ‘현지답사기’ 7면> 이들은 일정 첫날에 정토진종 총본산인 동본원사를 시작으로 도서출판법정관, 정토진종의 양대 총본산인 서본원사, 야주(野洲)의 정가사를 답사하였다. 이외에도 국보33간당, 교포 대국대학, 서각사, 동사(東寺), 용곡대학, 일본 조계종 총본산 보현사, 동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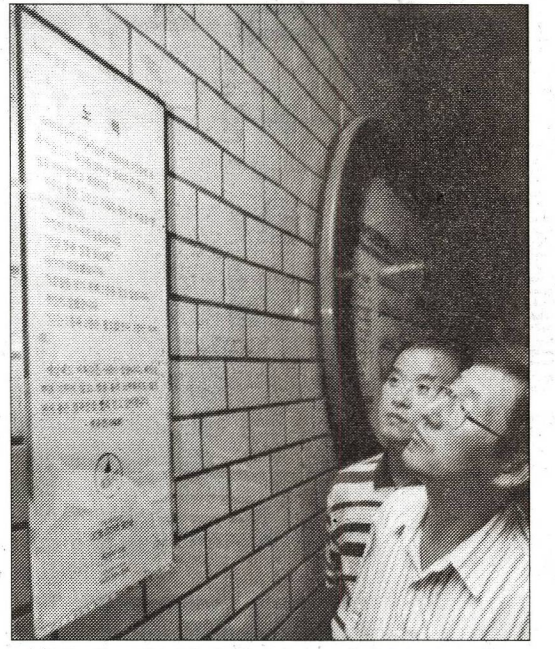
지하철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다

「포교게시판」 설치, 본 종단 후원 협찬

수도권의 일천만 이동인구가 이용하는 지하철 1,2,3,4호선 115개 역 승강장에 지하철포교 게시판 ‘자비의 말씀’이 우리 종단의 적극적인 후원 협찬으로 9월 중순까지 일제히 제작 설치된다. 각 역사에 4개씩 총 460개의 이 게시판에는 고난한 도시생활에서 자칫 잃기 쉬운 따뜻한 인간의 심성을 일깨워 주는 글귀가 일주일 단위로 실리게 되어 지하철포교의 새장을 열게 되었다. 이미 기독교계에서는 지하철역사의 공간을 이용한 전문선교회가 1980년대 중반에 설립되어 그 간 상당한 활동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간단한 감동을 주는 선교적 내용의 문구를 담은 ‘사랑의 편지’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이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은 단행본으로도 출판되어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불교계는 시민포교의 중요한 공간인 지하철포교에 대해 그간 거의 무관심으로 지내왔다. 각 지하철 또는 철도장 산하 국철의 불자단체가 있긴 하지만 교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으니 그 활동이 미진한 현실이다. 올해로 개교 25주년을 맞는 서울의 지하철은 1~4호선은 지하철공사가 맡고 있으며 5호선은

비롯하여 공사중인 8호선까지는 도시철도공사가 맡고 있다. 지하철공사에는 지하철법우회(회장 민병훈)가 그나마 정기법회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등 불교행사를 하고 있으나 도시철도공사법우회는 올해 3월에야 창립되었고, 한국불교 거점도시라 할 수 있는 부산의 경우에는 아직도 법우회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자비의 말씀’은 지하철법우회가 지하철공사에 지난 6월 10일 설치승인을 신청하여 7월 31일 그 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앞서 지하철포교에 열성을 가진 불자들이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그 발걸음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8월 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회원종단 대표자회의를 개최, 이 단체를 부설단체로 할 것을 합의하여 범종단적 차원에서 지하철포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앞서 우리 종단은 지하철포교게시판 사업의 초기에 드는 적지않은 재정으로 사업의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풍경소리 실무자를 배려했다 하여 면담한 결과 초기 예산의 전액을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한편 8월 24일 오후 7시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

있는 지하철법우회법당에서는 포교게시판의 설치를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법회가 지하철법우회회원, 도시철도공사법우회회원, 봉은사신도, 봉선사신도 및 관계자들 50명의 참여 아래 열렸다.



▲ 지난 8월 24일 서울시 전역에 포교게시판을 설치했다.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시민들이 관심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풍경소리)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반 평생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 변동 있어

종립 동해중학교 ‘김병준 교장’ 정년퇴임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종립 동해중학교 운동장에서 동 학교장 김병준 선생님과 손준달 교감, 채두원 부장선생님의 ‘정년퇴임식’이 있었다. 김병준 교장은 1954년부터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금년 8월로써 45년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했다. 그간 부산지역에서 우수한 학교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손준달 교감은 1958년 교직에 몸담기 시작하여 1968년 본교로 부임, 근무해왔다. 채두원 선생은 1967년부터 교직생활을 시작, 1973년에 본교로 부임해왔다.



▲ 김병준 교장

이날 퇴임식은 본종 총지화 통리원장, 최봉해 동해중학교이사장, 효강 법장원장, 이사 및 감사, 박진수 동창회장, 교직원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최봉해 이사장(법명 수성, 개천사 주교)은 치사에서 “학교발전은 위해 애써주신 세 분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단과 모든 선생님, 재학생, 동창 여러분들이 학교발전엔 더욱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은 퇴임선생님들의 약력소개를 시작으로 학생대표의 꽃다발 증정과 기념품 증정, 최봉해 이사장의 치사, 총지화 통리원장의 축사, 재학생대표의 시은사, 퇴임인사 등으로 진행되었고, 식후에는 다과회가 열렸다. 한편, 이날 퇴임식을 마친후 최봉해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입교장에 강경중 해운대중학교 교사, 신입교감에 이대우 동해중학교 교무부장을 각각 선임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개관초부터 정성을 다하여 물리치료를 담당하였던 물리치료사 조정(여)씨와 사회복지사 유승하씨가 지난 7월 중순 해외유학과 개인사정으로 사직하였고 강남고령자 취업센터의 상담사 윤일순(사회복지사)씨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8월 31일자로 사임하였다. 후임으로 이지영(여, 28살 물리치료사)씨와 황진수(여, 33살 사회복지사)씨가 7월 15일자, 8월 1일자로 각각 임명되었다. 이지영씨는 영동전문대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였고, 황진수씨는 성심여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여 우리 종단의 사회복지시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취업알선센터에는 손화정(여, 27살 동국대 사회복지학과졸업)씨가 9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다.

추경예산 및 내년도예산 편성자료 수집공고

본 종 통리원에서는 전국 사원의 99년도 추경예산 및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편성자료 수집을 일제히 공고했다.

여름학기 휴가실시

종단 승직자 및 종사자들의 하기휴가가 지난 7월말에서 8월말사이 2박 3일간씩 실시되었다.

바로잡습니다

- 3면의 ‘만다라 소개’ 기사 가운데 ‘만다라관’의 ‘불아축불’ ‘형심세 명왕’은 잘못이기에 ‘불아축불’ ‘형심세 명왕’으로 바로 잡습니다.
7면의 ‘종교사회복지연구소 현황’ 기사 가운데 ‘강창식 씨’는 잘못이기에 ‘강찬순 씨’로 바로 잡습니다.
8면 ‘인물탐방’ 기사 중에 ‘효강 대종사’를 ‘효강 대정사’로 바로 잡습니다.

구독신청 (02)552-1080~3
기사제보 전화/02) 508-8933 전송/02) 552-1082 홈페이지 www.chongji.or.kr

동정

[종령 특정 대종사 및 기로스승]

▲ 종령 특정 대종사님과 기로원에 계시는 원로스승님들께서 지난 8월 19일 경기도 포천과 광릉 수목원 등지로 휴양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날 휴양은 원로스승님들을 위해 서울·경기교구 정사, 전수님들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교 게시판 설치건 등을 논의했다. ▲ 지난 7월 22일 조계사 대웅전과 종단협의회 사무실에서 봉행된 ‘불교연합창단 창립 법회’ 및 ‘현관식’에 참석했다.

[효강 법장원장]

▲ 효강 법장원장은 지난 9월 14일 종단협의회 이사회에 참석했다.

▲ 지난 8월 24일 종립 동해중학교 김병준 교장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했다.

[총지화 통리원장]

▲ 총지화 통리원장은 지난 9월 12일 육군 제 51사단 군법당에서 불자장병을 대상으로 법문을 설하였다. 이날 법회에는 지광 법사, 서동석 실장이 동행했다.

▲ 지난 8월 2일 불교텔레비전 이사회에 참석했다.

[인사발령]

▲ 통리원은 윤혜영 교무(부산 정각사 수습근무)를 지난 9월 1일자로 정식 종무원으로 발령했다.

▲ 지난 8월 2일 불교텔레비전 이사회에 참석했다.

[학온]

▲ 청주 혜정사 수증원 전수님의 장남 조현기 군의 결혼식이 지난 9월 18일(토) 오후 1시30분 ‘서정주 스승’에서 있었다. 자리를 빛내주시는 승님과 내빈께 감사드립니다.

▲ 통리원은 윤혜영 교무(부산 정각사 수습근무)를 지난 9월 1일자로 정식 종무원으로 발령했다.

[왕생성불]

▲ 총지사 신정희장 월광인 보살(속명:김성민)의 시어머님께서 지난 8월 23일 열반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왕생성불을 기원합니다.

▲ 통리원은 윤혜영 교무(부산 정각사 수습근무)를 지난 9월 1일자로 정식 종무원으로 발령했다.

밀교교리 3

성불의 해제 (3)



효강 법장원장



▲ 망집을 없애는 것이 곧 성불이다. 사진은 천불화현상(간다라 3세기경)

초급망집이란 무엇이냐하면 인집품(人執品)의 혹(惑)을 말한 것이다. 인집품의 혹이란 결국 인무아(人無我)의 이(理) 즉, 인공(人空)의 이(理)를 모르는 무명(無明)을 말하는 것이다. 원래 우리들이 말하는 자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五蘊)의 가화합

(假和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거기에 는 하등의 항구성(恒久性)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재성(實在性)도 없다. 그러므로 현 교의 입장에서 요약하면 소승인(小乘人)인 성문(聲聞), 연각(緣覺)의 이승인(二乘人)은 이 혹(惑)의 단제(斷除)하여 인공(人空)의 이(理)를 깨닫게 된다.

다음에는 제이집 세망집(제이집 細妄執)이란 무엇인가 하면 법집품(法執品)의 혹(惑)을 말한다. 법집품의 혹이란 법무아(法無我)의 이(理)를 모르는 혹을 말하고 있다. 원래 일체제법(一切諸法)은 인연소 생(因緣所生)이므로 가유(假有)이며 무자 성(無自性)이다. 그러므로 사람도 무아(無我)이며 동시에 법 역시 무아(無我)이다. 즉 주관의 세계도 객관의 세계도 역시 무 상이며 무자성이며 무아이다. 그러므로 현 교의 입장에서 보면 법상(法相-제육주심 第六住心)삼론(三論-제칠주심 第七住心)의 권대승(權大乘)의 사람들은 이 혹을 단멸(斷滅)하여 법공(法空)의 이(理)를 증득하여 만법유심 심의무법(萬法唯心 心外無法)의 이(理)에 통달하게 된다.

다음에 제삼집 극세망집(第三劫 極細妄執)이란, 이른바 무명품(無明品)의 혹(惑)을 말한다. 무명품의 혹이란 능소(能所)에

집착하여 아직도 평등일심(平等一實)의 경 계를 체득하지 못한 혹(惑)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교의 입장에서 요약해 보면 천대(天台-제팔주심 第八住心) 화엄(華嚴-제구 주심 第九住心)의 양일승(兩一乘)에서는 일체법에는 능소가 있다는데 집착하는 이 무명품의 혹(惑)을 단제(斷除)하여 진여경

삼집의 세망집은 우리들의 미정(迷情)을 차견(遮遣) 단혹(斷惑)해야 할 망집이다.

등(眞如平等)의 이(理)를 체증(體證)하여 일체제법(一切諸法)에 있어서 일실중도(一實中道)의 진리를 알게 된다. 이것이 삼집에 대한 대승의 개념이다.

결국은 이 삼집은 표면에서 보면 우리들의 미정(迷情)을 차견(遮遣) 단혹(斷惑)을 말한 것인데 다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소승(小乘) 권대승(權大乘) 화천(華天) 양일승(兩一乘)과 밀교와의 대변(對辨) 즉 현밀교(顯密二教)의 비교 대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소도(所度)의 번뇌

를 삼망(三妄)이라 하며 현교의 삼집성불 설(三劫成佛說)을 인용하여 진언행인(眞言行人)의 삼망(三妄)의 단위를 명백히 밝힌 것이 곧 삼집사상(三劫思想)이다. 어쨌든 수행의 시분을 나타내는 삼집을 특히 망집의 뜻으로 해석하여 일념(一念) 또는 일생

(一生)에 삼집을 초월한다고 설한 것은 확실히 밀교의 단혹(斷惑)이 점단(漸斷)이 아니고 툇단(頓斷)이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여기에 밀교의 단혹론(斷惑論)의 특 색이 있는 것이다. 소가(疏家)가 말하기를 「약일생도차삼망집 즉 일생성불 하문시분 아(若一生度此三妄執 卽一生成佛 何論時分耶)」(대일경소 제 2)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뜻을 말한 것일 것이다. 소가(疏家)라고 하는 것은 대일경을 친술 한 선무의(善無畏)삼장을 말한다.

지상설법

말을 참지 못하면 몸을 망친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고 있다. 불교에서 말로 인하여 짓는 죄업을 ‘십악설(十惡說) 가운데 크게 네 가지로 교설하고 있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의 신업(身業), 뜻으로 짓는 세 가지의 의업(意業), 입으로 짓는 네 가지의 구업(口業)이 그것이다. 입으로 짓는 구업(口業)이 열가지 업 중에 네 가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들어 우리는 중생들이 가장 흔하게 짓게 되는 죄업이 삼업(三業) 가운데 구업이라 말하기도 한다. 구업에 대한 부처님 교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부처님께서 말을 참지 못하여 얻게 되는 과보를 다음과 같은 비유로써 말씀하셨다. 『옛날 어느 때 아연악이라는 연못가에 두 기러기가 살았는데, 이들은 연못에 살고 있는 한 거북이와 친하게 지냈다. 연못의 물이 마르자, 두 기러기는 친한 친구인 거북이가 반드시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구제할 방법을 의논했다. 그리고 거북이에게 말했다. “이 못물이 자주 마르니 그

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이를 계승으로 설하셨다. 사람이 살고 있지만 도끼가 입안에 살고 그 모든 악한 말로써 스스로 자기 몸 찌네. 마땅히 책망할 것을 도리어 칭찬을 하고 마땅히 칭찬할 것을 도리어 책방을 하여 자기가 재앙을 받고 마침내 즐거움 없네.』 (오분율 권제25)

망어(妄語)는 독약, 모든 화는 입에서 난다. 마땅히 말을 경계해야 ...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무토막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 둘은 두 끝을 물테니 그대는 중간을 물고 함께 날아갑니다. 그대를 물이 많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오. 그런데 나무를 물고 날아갈 때는 절대로 말을 해서서는 아니되오”하고 말을 끝내고 곧 거북이에게 나무토막을 물게 하여 두 기러기는 하늘로 날아갔다. 한참후 어느 동리 위를 날아갈 때, 이를 보고 동리 아 이들이 소리쳤다. “기러기가 거북이를 물고 간다. 기러기가 거북이를 물고 간다” 이렇게 떠들자 거북이는 곧 화를 내어, “어째서 기러기가 나를 물고 가는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하고 소리쳤다. 그때 입이 벌어지면서 물었던 나무를 놓치고 만 거북이는 그만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된 말을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독하고 해되는 말, 추악한 말, 남을 괴롭히는 말, 다른 이로 하여금 성내고 원한을 갖게 하는 말, 천하고 나쁜 말, 이러한 말들을 모두 버리고, 항상 윤택한 말, 부드러운 말, 즐거운 말, 듣는 사람이 기뻐할 말, 남의 마음에 잘 드는 말, 바르고 예의 있는 말들을 하며, 항상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진실한 말, 옳은 말, 법도 있는 말, 순한 말, 이치에 맞는 말, 때를 헤아리고 결정하여 말하여야 하리라. 보살은 우스 게 소리일지라도, 오히려 항상 살피고 생각하여 행해야 하는 바, 어찌 난잡하고 사나운 말을 함부로 하랴.』 (화엄경)



총지화 통리원장

만다라관(曼荼羅觀)은 불보살의 명호와 함께 진언종자를 관하는 것

만다라 소개 6

지난호에서는 '만다라관'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만다라관은 금강계 오불(五佛)과 사대보살(四大菩薩), 태장계의 사대 명왕(四大明王)과 사대천왕(四大天王)을 관하는 의례로서 우리 종단이 태장계 금강계 양부만다라를 봉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호국

먼저 '중양에 대일여래'라고 관송(觀誦)할 때, 마땅히 입으로만 염송할 것이 아니라 관법(觀法)과 함께 그 뜻도 관상 하여야 합니다. 즉 금강계 대일여래의 종 자자(種子字)인 '밤(vam)'의 법자(梵字) 「ᄃᆞᆫ」를 관하면서 '만다라 전체의 제존(諸尊)의 본체(本體)요, 일체를 나타내 보

불을 관송할 때는 종자 '뜨라(trah)'의 법 자 「ᄃᆞᆫ」를 관하며, '수행의 부덕을 증만 케 한다'고 관상합니다. 서방의 아미타불 을 관상할 때는 종자 '히리(hrih)'의 법자 「ᄃᆞᆫ」를 관하면서 '윤회생사의 인연을 떠나 분성정정한 열반을 증득함'을 관상합 니다. 북방의 불공성취불을 관송할 때는 종자 '아(ah)'의 법자 「ᄃᆞᆫ」를 관하며, '중 생구제의 지혜로써 실지를 이루게 됨'을 관상합니다. 이상이 오불(五佛)의 관법(觀 法)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방(四方) 사불(四佛)을 각각 친근하고 있는 사보살(四菩薩)에 대 한 관법(觀法)입니다. 동방 아축불의 친근 보살인 금강살타를 관송할 때는 종자 '아 (ah)'의 법자 「ᄃᆞᆫ」를 관하며, '금강견고 한 보리심을 갖추어 웅맹한 중생이 됨'을 관상합니다. 남방 보생불의 친근보살인 금강보보살을 관송할 때는 종자 '움(om)'의 법자 「ᄃᆞᆫ」를 관하며, '보리심을 일으 켜 일체중생에게 공덕을 시어(施與)토록

서원함'을 관상합니다. 서방 아미타불의 친근보살인 금강법보살을 관송할 때는 종 자 '히리(hrih)'의 법자 「ᄃᆞᆫ」를 관하며, '번뇌에 물들은 범부의 세계를 분성이 청 정토로 하여 중생이 구제됨'을 관상합니 다. 북방 불공성취불의 친근보살인 금강 업보살을 관송할 때는 종자 '캄(kam)'의 법자 「ᄃᆞᆫ」를 관하며,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금강견고한 삼마지에 들어가 중생을 구제하고 소원을 성취함'을 관상합니다. 이상이 사보살의 관법입니다. 이와같이 만다라관을 행할 때는 불보살 의 명호를 지송하며 중양과 사방 각각에 불보살의 진언종자를 관해야 제대로 된 '삼밀유가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종자를 자신의 몸에 다섯 군데에 각각 포치하여 관하기도 하는데 이를 종 자포치법(種子布置法) 또는 포치법(布字 法)이라고 합니다. 몸의 다섯 군데를 흔히 오처(五處)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언, 결인과 함께 관법(觀法)을 갖춰야 진정한 '삼밀유가법'이라 할 수 있다

가불사를 올리면서 우리는 만다라관을 관 하게 되는데, 이번호에서는 참고로 만다 라관의 구체적인 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가 합니다. 만다라관을 행할 때 우리는 불 보살과 명왕, 천왕의 명호를 외우고는 있 지만 관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만다라관에 대한 구 체적인 관법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는 생명의 부여자로서 불(佛)의 자성 (自性)이 우주에 총만해 있음을 관상(觀 想)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사불(四佛)을 관송합니다. 동 방 아축불을 관송할 때는 종자 '흠(hum)' 의 법자 「ᄃᆞᆫ」를 관하며, '무진에(無顛喪) 로써 서원하고, 부동의 경지를 수행하여 성불을 이룬다'고 관상합니다. 남방 보생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에 가서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몸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 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나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 값 6,000원

불교개설 7

근본불교의 교설④ - 오온(五蘊)

정리: 대현(법장원 연구원)

온(蘊)은 범어 Skandha의 역어로서, 구역(舊譯)에서는 음(陰)·중(衆)·취(聚) 등으로 번역했다. 같은 종류의 법이 화합적취되어 있는 것을 온이라고 한다. 오온(五蘊)은 다섯 가지의 같은 종류의 법이라는 것으로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을 말한다. 오온은 일체의 유위법(有爲法)(인연에 의해 생긴 것)을 가리키며, 특히 유정의 개체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我)라고 하여 집착할 실체(實體)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신(心身)은 오온이 잠정적으로 모여서 이루어진 것(五蘊假和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 색온(色蘊)

색(色)이란 '거림', 즉 무엇인가에 감촉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느낄 때, 그 느낌에서 비롯된 개념으로서 마

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관념인 것이다. 그러므로 색을 곧바로 '물질'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 ... 일체의 유위법, 즉 인연에 의해 생긴 것으로 나(我)라고 집착할 실체(實體)가 없는 것

자 하는 미묘한 내용을 놓칠 위험성이 크다.

색온은 오근(五根)·오경(五境)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근(根)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 경(境)을 상식이나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또다시 불교가 말하는 근과 경의 의미를 놓치게 된다.

2) 수온(受蘊)

수는 고수(苦受-불쾌감)·락수(樂受-

쾌감)·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捨受) 등으로 구별되는데, 이것은 요컨대 우리들의 감각작용을 의미한다.

3) 상온(想蘊)

지각·표상작용이다. 우리가 외부의 사물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그 인식대상을 직접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그 대상을 우리들의 마음 위에 그대로 취하여 받아들여서, 그 마음 위에 나타난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을 상(想)이라고 한다.

4) 행온(行蘊)

행(行)은 '조작'의 의미가 있으며, 이미 만들어진 지각·표상을 가지고 의지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의지·사고작용의 결과로서 취하고 버리는 행동이 업(業)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색·수·상·식을 제외한 모든 정신적 작용과 세력적 작용 등은 모두 이 행은 가운데 포함시킨다.

5) 식온(識蘊)

요별(了別)·인식·종합적인 판단작용으로서 대상에 대하여 사물을 식별하는 본체, 곧 육식(六識)을 말한다.

위와 같은 오온설에서 색온은 실제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오온을, 연기설을 통해 연기의 흐름속에 있는 것임을 밝혀 중생의 무지를 일깨우고 있다.

'복지사업과 전법활동'을 위한 지역조사 실시예정

『복지재단』 주관으로 사원 소재지부터 조사

조사 배경

새로운 천년대가 열리는 내년은 사회 복지법인 불교총지중보사회복지재단의 실질적인 사업원년이 된다. 역삼재가노인 복지센터의 운영으로 얻은 성과와 문제점을 거울 삼아 복지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유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종단의 사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복지사업을 비롯하여 전법과 교화도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분석하자면, 그동안 우리 종단은 이러한 노력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타종단의 유력한 사찰은 경기도 신도시에 일선 전법도장을 개설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

석,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포교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과학적 사고로 전법에 임하고 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바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할 때다. 총체적인 종단발전을

유동인구 등과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이 조사된다. 여기에 지역의 문화 교육 복지 도로 등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물론 지역의 복지시설의 종류와 운영주체, 복지사업 프로그램 및

을 통해 종합 분석할 것이다. 또한 지역신문사, 지역운동단체, 주민자치조직 등이 확보하고 있는 정책자료 및 문제점과 현안을 입수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조사는 가능한 우리 종단의 관계자와 필요한 전문인력이 결합한 기획단이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사원, 교도 및 유관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이다.

“정확한 조사와 분석으로 복지·전법활동이 유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위한 계획 확정에 앞서 사원이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부산지역을 네등분하여 순차적인 조사를 착수하고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사업의 설정이 있을 것이다.

조사 범위

우선 해당지역에 대한 환경분석을 하게 된다. 지역 인구, 성별, 연령별 및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응 정도도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사업의 일반 및 특화된 프로그램을 입안하게 될 것이다.

조사 방법

환경 분석은 일차적으로 기존의 자치단체별로 발간된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직접 방문 면담 및 시설답사 등



육바라밀의 실천과 생활화 9

법공 (만보사 주교)

삼종시 - 2)법시

전편까지는 삼종시(三種施) 가운데 첫 번째인 재시(財施)를 중심으로 특히 우리 '총지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절량(切糧)·정시(定施)·차시(差施)·10/1 회사법 등에 대해 주로 설명 드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인 법시(法施)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경(經)에 설하시기를 "법시공덕(法施功德)은 삼종시(三種施) 가운데 최상이라" 하시니 두서너 가지 승(勝)한 이유를 "첫째, 재시(財施)는 다할 때가 있지만(有限) 법시(法施)는 증장(增長)하여 다함이 없고(無限) 둘째, 재시는 받으면 현재에

을 지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물질(財)이나 유상만을 있는 것으로(存在)로 알고 형상없는 진리나 법에 대하여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며 그 자체를 불신(不信)부정(否定)하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행자(行者)는 법시공덕의 수승한 이치를 알아서 부처님께서 깨쳐 밝혀 놓으신 진리(法)를 잘 익혀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중생들을 위하여 열심히 법(法)을 듣고 널리 경(經)을 공부하여 일체 중생들에게 불법(佛法)을 전하고 광선유포(廣宣流布)하여 무량한 법시공덕을 지어가야 하겠습니까.

끝으로 「현자오복경(賢者五福經)」의 법시공덕 송(誦)을 한 번 보기도 합시다.

법시(法施) ... 삼종시 가운데 최상 "증장하여 다함이 없고, 현재와 미래세에 자타가 이익하고 무상보리 증득된다."

만 이익하고(現世利益) 법시는 받으면 현재와 미래세에 다함없이 이익하고 내지 무량세에 이르기까지 남이 침해하거나 빼앗는 일이 없고 무량정등보리(無量正等菩提)에 이르기까지 서로 버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셋째, 재시는 주는 자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자는 이익이 없으나 법시는 자타(自他)가 함께 이익하고 법을 들으므로 말미암아 발심하여 속히 무상보리(無上菩提)에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大乘理趣 六波羅密多經 卷第四 布施 波羅密多品)

◎법시공덕◎ 부처님이 이르시되 고통있는 사람에게 현자법(賢者法)을 설하여서 교를 믿게 인도하면 경을 설한 인연으로 오복덕이 있느니라.

1. 살생 하는 이가 살생하지 않는 고로 장수함을 얻게되며,
2. 투도 하는 이가 도적하지 아니하고 능히 보시 하는고로 대부(大富)함을 얻게되며,
3. 법을 듣는 이가 희기있는 안색으로 기쁜마음을 내는고로 단정함을 얻게되며,
4. 법을 듣는 이가 불발승을 공경하게 받도록 하는고로 명칭말리 드러나며,
5. 법을 듣는 이가 심심법(甚深法)과 묘지혜를 깨치도록 하는고로 총명하고 큰지혜를 얻게되는 것이니라.

이와같은 인연으로 법을 설해 청계하면 설경자(說經者)의 복덕성이 한량없는 것이니라. (현자오복경(賢者五福經))

생활 속의 권리 지킴이

어떻게 표현하든 표현해야 한다

숨 돌릴 새 없이 쏟아지는 갖가지 상품과 광고로 인해 소비자는 항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아침 신문을 들면 새로운 소식보다 먼저 속지광고가 우수수 떨어지면서 이런저런 상품이 있다. 아주 값싸게 판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현혹이 눈을 가린다. 개중에는 아주 그럴듯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전적으로 민다가는 발등 찍히기 십상이다.

나는 지난 해 선물을 하나 받았다. 전자수첩이다. 요즘처럼 한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시절에 일일이 적자나 수첩이 여간 불쌍사납게 되지 않아 평소에도 꼭 갖고 싶었던 전자제품이었다. 아주 적절하게 선물을 받았고 한 일년 넘게 대단히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워낙 정밀하고 충격에 민감한 제품인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주의 깊게 사용하였다. 제품의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을 머리 속에 꼭 쟁겼음은 물론이다. 특히 전자수첩은 전지를 갈 때 전원이 완전 끊어지지 않도록 전지를 함께꺼내 갈지 않고 두개 중 하나를 잘고 나서 후에 나머지 전지를 갈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입력된 자료가 모두 날라가게 된다. 이렇게 주의 깊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두달 전에 멀쩡하게 사용하던 전자수첩이 갑자기 작동되지 않았다. 이리저리 점검을 해

보아도 영 멍청해진 전자수첩이 되살아나지 않았다. 더 건드려봐야 문제만 커질 것 같아 즉시 제조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 제품고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거기서도 신중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였다. 그곳의 말인즉, 전화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센터로 갖고 오라고 하였다. 서울 구의동에 있는 센터에 제품을 맡겼는데 그곳의 설명에 따르면, 회로의 선이 외부 충격으로 끊어졌다는 것이다. 더욱 분개한 것은 그동안 입력된 전화번호가 모두 지워져 복구가 안된다는 것이다. 각설하고, 센터와의 실랑이로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에 다시 제조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항의 편지를 남겼다. '귀사의 전자제품을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에 있는대로 대단히 주의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도 전자회로의 선이 끊어져 수첩 안에 입력된 자료가 모두 지워졌다. 사소한 전화번호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대단히 소중한 자료들이다. 만일 내가 영연하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거래처가 모두 끊어질 판 아니냐? 귀사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만일 빠른 시일내 성의 있는 자제가 없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귀사의 제품을 사용하다 나와 비슷한 피해를 입을 사람을 모아 대대적인 귀사제

품의 불량성을 폭로하고, 집단적인 배상운동을 벌이겠다.'

인터넷 시대, 전자통신망의 위력은 실로 업수히 볼 것이 아니다. 앞으로 연재를 통해 이런 소비자권리보호운동의 사례를 소개하겠는데, 역시 전자제품을 다루는 회사라서 그런지 제조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회사제품의 결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결함을 보완한 제품을 생산하여 시판 중이다. 이미 사용하신 제품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에 사과한다. 회사의 성의로 전자수첩과 개인용컴퓨터를 연결하여 서로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는 연결장치를 우송하여 주겠다.'는 답변에 이어 다음 날 약속대로 연결장치 등을 소포로 전달 받았다. 그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관철한 사례가 될 것이다.

권리는 지키려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부당한 피해를 입고 묵묵히 지낸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부당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선한 것은 절대 아니다.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 탐욕이 아니다. 자신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어떻게든 표현하라. 도움을 줄 사람과 문제 해결의 방법은 그때 찾아진다. 옛말에 '병 자랑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료제공:종단협소비자보호위원회>

밀교용어소사전

관정(灌頂)

관정(灌頂)이란 다섯 가지 계를 받아 불문(佛門)에 들어갈 때 물이나 향수를 정수리에 뿌리는 의식을 말한다. 이를 관정수계(灌頂受戒), 관정의식(灌頂儀式) 또는 관정식(灌頂式)이라 한다.

관정은 원래 인도에서 제왕의 즉위식이나 태자를 책봉할 때 그 정수리에 바닷물을 뿌리는 의식에서 출발했던 것이 치츄 불교에 수용되면서 불가입문(佛家入門)의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밀교에서는 진언, 결인, 관법의 삼밀수행법과 함께 다양한 작법(作法)이 이루어지면서 제재초복(除災招福)과 구경성불(究竟成佛)을 위한 작법(作法)으로 발전하였고, 밀교에서는 이를 총칭하여 비밀관정(秘密灌頂), 밀관(密灌)이라 한다.

밀교에서는 관정을 중히 여겨 여래(如來)의 상진(上眞) 오병(五瓶)의 물을 제자의 정수리에 뿌리는 작법으로 불타의 법위(法位)에 다다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결연관정(結緣灌頂)과 학법관정(學法灌頂), 전법관정(傳法灌頂) 등이다. 결연관정은 널리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것이다. 널리 불연(佛緣)을 맺어주기 위해 단(壇)에 올라가 모든 부처님께 꽃을 올리고 인연있는 일존(一尊)을 선택하고, (이를 투화투불投華轉



▲ 지난 97년 대전 만보사에서 수명관정수계식이 봉행했다.

佛이라 한다) 그 부처님의 명호(名號) 라위(阿耨梨位)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해 대일여래의 의계명법(儀軌明法)을 주는 것으로, 진언(眞言)의 오묘함과 비밀스러움을 전하는 관정이다. 여기에는 또 인법관정(印法灌頂), 사업관정(事業灌頂), 이심관정(以心灌頂)의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관정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계속)

간다라 미술대전 관람

지난 8월 18일, 종단 종무원 단체관람

간다라 미술의 정수를 느껴보자 ... 지난 8월 18일 분산 전 종무원들은 바쁜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던 '간다라 미술대전'을 단체관람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 관람은 법장원 연구원의 동행으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불교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롯데월드 쇼펄 3층 민속전시관에서 열린 '티벳 네팔 만다라 예술대전'도 관람했다. 앞으로 종단은 모든 불교관련 전시회나 공연에 전 승직자와 종무원들을 단체관람하도록 할 방침이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자 현황과 인식조사

우리 종단이 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가 개관한지 6개월이 지났다. 종단으로서 처음으로 지역복지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종단의 관심과 지원이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종단의 지원에 부응하여 복지관의 직원들 역시 그 어느 시설의 직원보다 성의를 다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하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노령자를 상대로 하는 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역삼노인복지센터의 사업이 곧바로 우리 종단의 사회복지사업의 잣대가 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단 복지사업의 첫시도로서 시설의 규모나 사업의 범위 등등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다.

복지관 개관에 즈음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약 보름간 강남구 역삼권 일대(역삼1·2동, 도곡1·2동 및 논현동)의 60세 이상 노인분들의 현황과 욕구조사를 한 바 있다. 복지관 직원들이 2인 1조를 짜서 동사무소, 노인정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직접 방문·면담방식으로 의견을 물었다. 당시 조사에서 나타난 욕구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이후 6개월의 사업을 통해 복지관 이용자가 갖고 있는 의식과 소감을 알아보았다. 종단의 지속적인 복지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조사의 주된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종단의 노력에 대비하여 지역노인들이 불교계와 우리 종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물론 아직 사업 6개월이라는 짧은 시기를 갖고 사업의 성과를 운운한다는 것이 성급한 판단일 수 있겠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위한 기초로서 활용할만하다고 판단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종단의 전범교화사업에 정진하고 있는 전국의 스승님과 종도여러분에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관심을 갖고 분석하여 주시길 바란다.

참고로 복지관 이용 노인분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 된다. 그중 경로식당 이용자가 과반수를 훨씬 넘고 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분은 주로 주간보호노인분(8월 말 현재 정월23명)과 물리치료 그리고 사회교육프로그램인 은빛교실 수강자가 응답하였다.

역삼권 노인분 현황

지난 2월의 조사를 보면 역삼권 노인분은 여성분이 월등 많은 것(전체 210명 가운데 71.9%인 151명)은 나타났는데 역시 복지관 이용자도 70%가 여성분이다. 나이는 표1과 같이 조사되었다.

표1. 노인분 연령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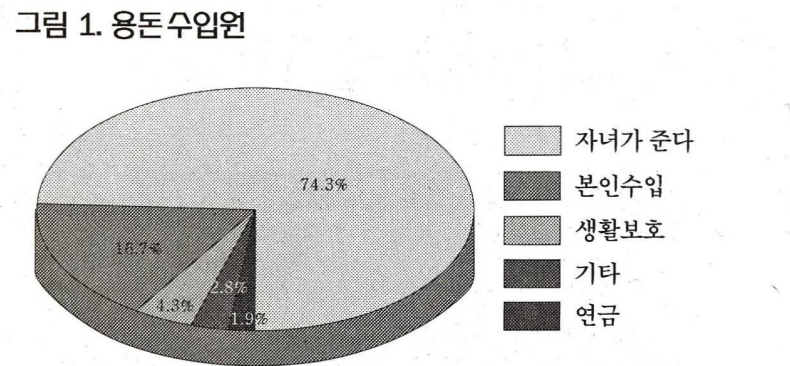
나이	명	%
50~59	2	0.9
60~65	5	2.4
66~69	23	11.0
70~75	81	38.6
76~79	47	22.4
80~85	40	19.0
86이상	12	5.7
계	200	100

또 이분들의 다수(66.7%, 140명)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가운데 67명은 글자를 해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달 용돈은 10만원 이하가 44.4%, 10만에서 20만원이 38.6%이며 용돈은 주로 자녀에게서 받는다(74.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본인이 버는 사람도 16.7%, 35명이다. 수입원은 취로사업이나 가내수공업이라고 하였다. 그밖에 남편이나 혹은 먼 친척의 도움을 받는 분도 2.8%로 조사되었다.

건강이 단연 최고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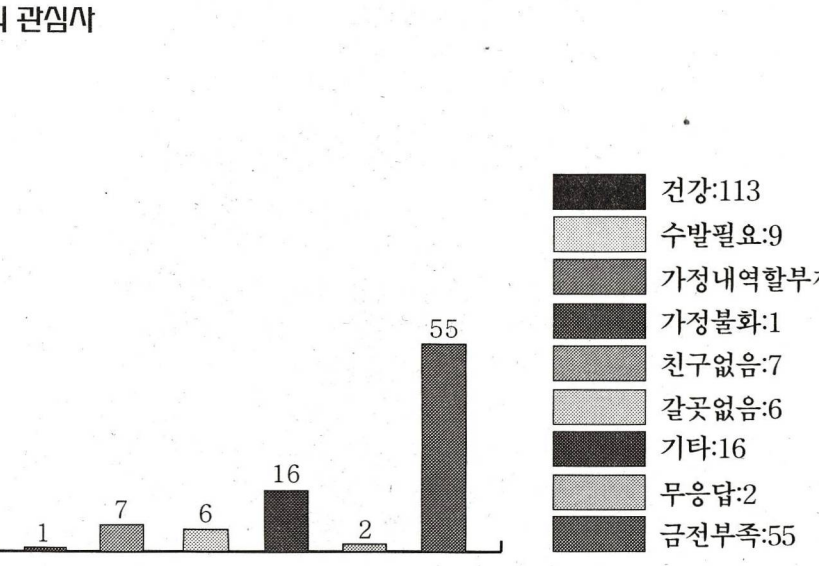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 그중 건강문제가 단연 문제로 꼽혔다. 53.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금전적 문제(26.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듯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 노인건강상담(26.2%), 치매예방교육(11%)과 물리치료(39%)를 합쳐 건강관련 프로그램들을 주로 해달라는 요구가 76.2%나 되었다.

노인분들은 노인정모임(38.8%), 종교활동모임(13.8%), 집안일(15.5%), 노인대학모임(3.1%), 친구나 친척집 또는 공원 등(15%)을 찾아 소일하고 있으며 손자수발, 취로사업, 가내수공업, 병으로 집에만 있다가 동네일을 맡아 처리하는 분도 있다.

이점은 우리 복지관 이용노인분들의 경우만 보



우리 종단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복지관 이용분들은 처음에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줄 전혀 몰랐던 분이 37%였는데 이런 분들도 이용 과정에서 우리 종단에 대해 89%가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우리 종단에 대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였으나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교종교를 알게 된 분이 57%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에서의 공공연한 종교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며 또한 드러내놓고 전범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보다 꾸준한 복지사업의 실천 속에서 불교로의 선회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종단의 방침이다. 그런 방침에서 본다면 사업시행 6개월만에 종단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종단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도 43%나 되어 복지사업과 전범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직원에 대한 종단 교육 등

다려도 66%가 노인복지시설을 처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령화시대에 맞추어 노인복지시설의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분들을 위해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놀이시설을 제공하라는 요구(28.2%)가 가장 높았는데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노래교실(31.3%), 민요교실(14.0%), 전통춤교실(11.9%)이라고 하였다. 특이하게도 건강에 관심은 있으며 건강체조는 상대적으로 낮게(11.9%) 선호하였다. 이는 노년을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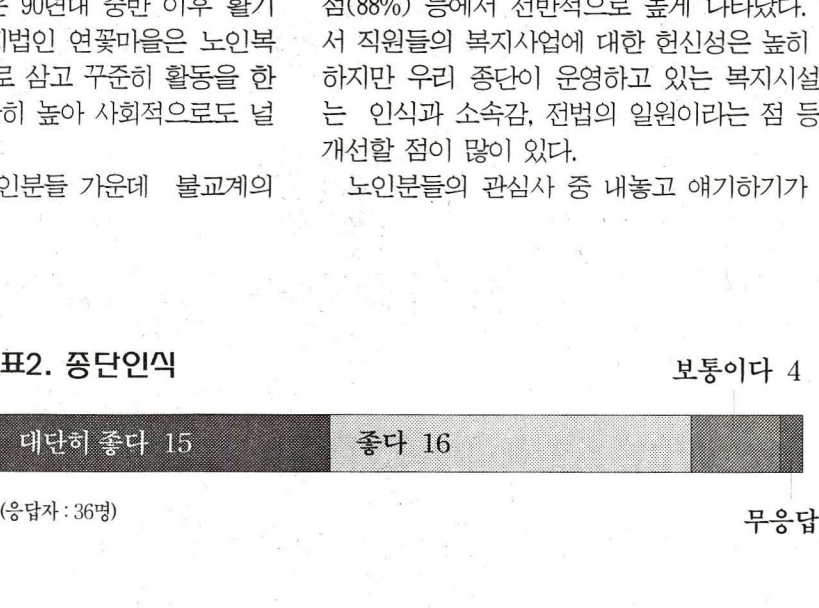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이 많다

복지관 이용분들 가운데 종교가 없는 분보다 있는 분이 월등 많고(74%) 이 분들 중 기독교계대 불교가 4대3 정도로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밝힌대로 노인복지시설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분이 66% 정도 되는데 특히 불교계나 다른 종교

‘노인복지에 정부가 지금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4%’

이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의 만족(88%), 직원 인성과 태도에 대한 만족(86%) 및 복지관 평점(88%)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원들의 복지사업에 대한 헌신성은 높히 살만 하지만 우리 종단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라는 인식과 소속감, 전범의 일원이라는 점 등에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

노인분들의 관심사 중 내놓고 얘기하기가 거북



한 상징의례에 대해 '불교종교에서는 외로운 임종을 맞을 노인분들을 위해 상징의례를 치루우고 있습니다. 불교종교의 신도가 아니어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31명의 응답자 중 12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한 분이 10명, 가족과 상의하겠다고 한 분이 7명, 종교가 달라 싫다고 한 분이 2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보다 폭넓은 조사로 보완되어야 겠으나 해가족화에 따라 독거노인들이 늘고 있는 사회 추세에서 이분들의 임종을 보살필 시행단체



현목의 세상읽기

어린 생명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종단협 소비자보호위원회 실장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다. 비록 온종일 개구쟁이짓으로 속을 썩일 때는 어디 다리 밑에라도 버리고 싶지만 저도 뛰어노느라 지쳤는지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노라면 전혀 다른 감정을 갖게 한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사랑스러워진다. 그렇지만 마음 속에서 굳은 다짐이 절로 솟는 것 또한 천성이 세상의 여느 부모라도 다를 없을 것이다. '이 아이들이 얼추 제 앞가림이라도 할 때까지 나는 예비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자식들에게는 지금의 이 난장판 세상을 물려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원력은 만민의 것이 아닐터이다. 더러 이렇게 소중한 자식들이 자라다 혹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렇게 소중한 자식들을 짓궂은 귀신이 흉년 데려갈까 두려워 아이 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천박하게 지었다고 한다. 나 또한 부모님의 그런 절절한 애정으로 키워졌고 대를 이어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내리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를 물려 받았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어른과 자식간에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여러가지의 정체를 펴고 권장한다. 특정한 날을 잡아 그 도리를 다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을 하기도 한다. 사회 발전에 따라 상의 명칭과 의미는 달라져도 그 근본정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를테면, 예전의 열녀상은 자야비를 잃은 여성이 끝내 수절하면서 자식을 의젓하게 키우라는 유교적 이념의 표현이었다. 세상물정이 바뀐 지금도 수절의 강요는 없더라도 자식을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서 '일등'으로 키워낸 부모에게 갖가지 댓가를 제공한다. 그와 함께 자기자식이 남보다 더 성공하도록 힘 안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만든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다.

이 나라는 그런 부모의 헌신적인 자식사랑을 동력으로 국력을 키워왔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당신이 가난하고 힘 없는 까닭은, 사회체제의 잘못이 아니라 영동하게 배우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 단정하고 이 지극지극한 가난과 멸시와 천대를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오로지 자식들만큼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결과 이토록 비장한 결의가 곧바로 사회의 자신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한국사회의 학력만큼은 최상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그것이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룩한 동력이었다는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 이 나라의 풍토에서 자식을 어이 없게 잃었을 때 받을 충격은 가히 짐작이 가는 바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식을 남보다 더 일찍, 더 좋은 공부를 하라고 무슨 학원이다, 수련회다, 무슨 학습이다 하여 보냈는데 그 아침 밝은 미소로 떠난 아이가 참변을 당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도 이 잘난 나라의 무책임하고 부정한 관리들과 또 그들과 협잡하여 어린 생명을 담보로 제 이익을 챙기는 장사꾼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면 그 치받지는 울화가 어찌러라 능히 짐작된다. 쓰면 뽀지나 말아야 되는데 나라가 그 지경으로 예비미의 역할을 무너뜨리고도 '나 모 르쇠', '우린 잘못 없네'라고 돌아앉아 있다면 누가 이런 나라에서 살 가치를 가진단 말인가?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 수련원에서 화마로 자식을 잃은 김순덕씨 부부는 이런 나라에서 도저히 살 의미가 없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기로 하였다. 여자필드하기 국가대표선수로 국제대회에 나가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혀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았던 이였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제대회에 우승할 때 자랑스럽게 올라가는 태극기와 애국가에 눈시울을 적시길 한두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정부가 주는 훈장을 얼마나 영예롭게 여겼을 것인가. 자신의 아이도 그래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나찌정권이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이나 모든 파시스트들이 국가지상주의를 노래 불렀다고 하여도...

그러나 충성을 다한 국가는 자신의 어린 생명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 지켜주는 것은 고사하고 이 정부의 관리들 잘못으로 죽은 생명을 대해 일인방의 참회 성명도 없었다. 하도 억울하여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묵묵 부답이었다. 마침내 조상 대대로 뼈를 묻어온 조국에 대한 배신감에 훌쩍 이민을 가기로 하고 자신이 그리고도 소중히 간직하던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였다. 그제서야 국무총리가 먼저 나서서 만나자고 했다.

지난 8월 23일 총리공관에서 김씨는 총리를 만났다. 총리는 김씨에게 세렌드와 재참사의 진상을 재조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민을 만류하였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때는 늦었다. 어린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누가 이들의 이민을 탓하리오. 저질들의 난장을 볼 때마다 불쌍 이민을 떠올리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되려나.

맹자는 돌에 곡식이 널려있고, 곳간에 온갖 먹을 것이 널려있어도 그것이 백성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사회는 '식인사회'라고 못박았다. 먹을 것이 오히려 사람을 잡는다는 역설이다. 이 나라가 혹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이점은 그간 우리 종단 자체적인 조사로 확보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조사 경험과 자료가 거의 없사피한 실정을 감안할 때 중요한 성과라고 자부 할 수 있다.

이런 통계가 축적됨으로서 불교사회복지, 특히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우리 종단의 특성을 살리는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항상 일에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가

조사결과, “정부의 정책적 배려 없으면 노인생활·의식 수준 향상 없어...”

의 개관을 앞두고 복지관의 홍보를 겸한 조사였다. 또 8월의 조사는 복지관 이용자 가운데 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일반적인 통계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종단의 복지사업을 통한 사회적 역할의 증대, 종단 인지도의 제고가 확인되었고, 노령인구 현황과 노인들의 의식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러한 면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분석, 보완의 노력이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더라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 그렇지않고 막연한 추측이나 감정에 의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난'에 불과하다. 종단의 발전과 불교정토 건설에 이번 조사분석의 성과가 좋은 자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나아갈 방향 ⑤



▲ 어린이 포교는 종단의 미래를 좌우한다.

청소년 포교는 마땅히 어린이 포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 필요성을 공감해온지는 이미 오래됐다. 그러나 막상 어린이 포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대안 마련에 있어서는 거의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강조될 때마다 '미래의 포교,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부르짖지만 항상 공염불에 그치고만 있다. 이제는 어린이 포교를 위해 기존의

학교는 서울에 1곳 뿐이다. 이에 비해 카톨릭은 6곳, 개신교는 무려 20여 곳이나 된다. 이미 타종교와는 어린이포교에서부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학생·청소년불자 단체로서 가장 큰 조직과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파라미타'에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현행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불교특별활동을 초등학

교학생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교계의 많은 청소년포교 관계자들이 더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대학

레크레이션, 불교예절, 기초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신행 모임을 자생적으로 갖도록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

청소년 포교는 어린이 포교에서부터... '예비교사' 지원... 초등학생 포교 '선봉자' 역할토록

이나 사범대학에 대한 종단차원의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손꼽고 있다. '예비교사' 들을 사전부터 '불교 지도법사'로 양성한다는 방안이다. 예비선생님들을 지원하여 졸업 후 교직생활에서 어린이 포교에 선봉에 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가지 예로 우선 불교학생회나 불교동아리에 대한 장학금 및 후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예비교사'들에게 '불교지도법사'로서의 소양이나 포교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사전에 길러주는 것이다. 야유회, 수련회, 체육대회를 통해 기본적인

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구슬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급한 과제를 인식한들 실행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무용지물. 우리 종단도 예외는 아니다. 자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원은 전국을 통틀어도 몇 손가락이 안 된다. 더구나 자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지도교사를 두고 있는 사원 또한 많지 않다. 종단의 자성학교, 지도교사 등의 문제를 깊게 한번 생각해볼아야 할 때다. 어린이포교를 위해 어디부터 무엇을 손대어야 할 것인가?

신행수기

시련을 정진으로 극복



수인사 반아정 보살

어렸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던 나는 스승님의 소개로 다른 절에 계신 스승님의 손자와 선을 보게 되었다. 나는 승직(僧職)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그 집으로 시집을 가면 수행도 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이 남자와 결혼하고 나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승직으로 가려고 49일 불공을 하는데 시할아버님께서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다. 급한 마음에 앞 뒤 가리지 않고 시댁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할아버님은 건강하게 잘 계셨다. 불공 중에 시댁으로 급히 갔다오자던 나에게 '그것은 분명히 마장'이라고 말리시던 은사스승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이다. 불공을 깨트렸다는 자책이 심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함께 승직으로 가자던 남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다. 남편은 스스로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회사금을 잘 간수할 능력이 없

어렸고 그러니 달게 받고 열심히 불공하자.' 이런 말을 자식들에게 자주 했다. 자식들도 절에 열심히 다니던 까닭에 내 말을 잘 따라 주고 큰 불평없이 자라주었다. 나는 그런 자식들이 안쓰러워 물물 안 가지고 일을 했다. 88년에 남편은 결국 중병이 들었다. 마음을 꿇고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긴 병이었다. 부처님과는 담쌓고 사는 남편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자신이 '부처님께 약속한 것을 저버려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불공을 하니 살림도 펴고 잃어버렸던 집안의 웃음도 되찾았다.

그러나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일까. 남편은 그 뒤 삼 년 동안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본성을 찾던 남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하늘이 무너질 듯 암담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남

모든것은 법계(法界)의 뜻

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 자꾸 퇴전하는 것이었다. 또 늘 든든한 정신적 후원자였고 본보기였던 시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나도 완강하게 반대하는 남편을 어쩔 도리가 없어 근근히 불공만 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부처님과 나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려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재산들이 술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착한 남편의 태도도 그중에서 나 빠지기 시작했다. 언제나 다정다감하던 남편이 삶에 쩌들리니 모든 면에서 급격히 무너져 갔다. 심지어는 불공도 못하게 했다. 술을 마시고 집안 세간을 부수기도 하고 아이들과 나를 패기도 했다. 시동생들 때문에 생긴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저당잡히기도 했다. 그럴 때 마다 남편과 자신을 원망하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렇지만 마음을 놓아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항상 염송했다. 남편이 염주를 뜯어버리고 쫓아내도 남편을 피해 마루 밑에서 염송하고, 쌀이 없어 몇 끼씩 굶어도 염송만은 놓을 수 없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굶고 아버지한테 맞아도 절에 가서 꼬박꼬박 불공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받는 것은 전생 빛을 갚

아니 늦게라도 참회를 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신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남편이 돌아가시며 남긴 빚이었다. 내가 돌아가시에는 나이가 많은 것도 그렇고, 또 자식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돈은 전부 남편의 병원비로 들어가 남은 가족들은 살림이 막막했다. 그때도 우리 절에는 비로자나부처님이 계시지 않은가 하고 열심히 일하고 불공했다. 그런 덕인지 지금은 집안 살림도 좋아졌고 아이들도 자리잡고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수인사 처사로 있다. 염송 잘하고 착한 보살로, 또 좋은 염마로 남은 여생을 열심히 잘 살아볼 생각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식들은 힘든 일을 그만두라고 말리지만 아직 더 많이 낫추고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 자신도 편하게 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을 그만두고 자식을 공양 받으며 살 생각에 처사 일을 그만두려 할 때마다 큰 아들이 직장을 잃었다. 여러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부처님께서 아직은 더 많이 봉사하고 마음을 낮추라는 법문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수행과 염송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오늘도 공양처 일을 마치고 서원당으로 올라간다.

불교동화

고집이 센 뱀



김혜경 (법장인)

옛날에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 이 뱀은 눈치가 빠르고 먹이들이 어디 있는지 밤새도 잘 알았지. 그런데도 배고파지 않게 살았어. 그런데 어느날 뱀꼬리가 생각하니 좀 억울하거든. 다같이 한 몸인데 뱀머리만 앞서가고 맛있는 것은 입이 훌렁훌렁 먹어 버리고 자기는 그냥 머리만 따라 다니는 자존심이 무척 상했지.

그리고 먹이가 나 여기 있으니 잡아먹으라고 기다리더라도 한데? 뱀은 하루 종일 졸졸 굶었어. 굶기만 했나? 눈이 없으니 앞을 볼 수가 없었어. 나무 등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풍덩 빠져서 몇 번이나 머리가 구해졌지. "야, 저기 먹이가 있다. 빨리빨리 움직여서 저 토실토실한 쥐를 잡아 먹자." 이렇게 말하고 앞서 나가려는데 움직여지지 않는 거야. 꼬리가 뱀머리 말을 듣지 않고 나무 가지를 칭칭 잡고 있었거든. 그래서 맛있는 생쥐를 놓쳤지. "너 때문에 맛있는 쥐를 놓쳤어. 이 고집쟁이야." 뱀머리가 화가 나서 뱀꼬리에게 말을 해도 듣는둥 마는둥이야. 뱀머리는 언젠가 뱀꼬리가 깨닫게 되기를 빌었어. 뱀꼬리는 화가 난 뱀머리를 끌고 앞으로 휘적휘적 걸어갔어. 앞이 보여야지.

어느날 뱀꼬리는 머리한테 통명스럽게 말했다. "야, 머리아, 너는 맨날 앞서 가고 나는 졸졸 따라다니는 한 번 바뀌어서 살아보자." 뱀꼬리의 말을 들은 뱀머리는 기가 딱치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럼, 말이 돼지. 너만 앞에 가라고 누가 처음부터 정해놨어?" 이렇게 따지는 뱀꼬리한테 뱀머리는 좋게 타일었어. "세상에는 자기가 할 일은 다 따로 있는 거야. 고집부리지 마." "뭐? 그럼 나는 늘 너만 따라 다녀야 한다는 말이야? 내가 어디가 못나서?" "나를 따라 다니라는 말이 아니야. 너 눈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잖아." 뱀꼬리는 뱀머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귀찮은 듯이 잘라 말했다. "걱정하지마.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나만 따라 오면 돼." 뱀머리가 아무리 안 된다고 말려도 고집센 꼬리는 말을 안 듣는 거야. 할 수가 있나. 꼬리가 얼마나 버티겠나 싶어 그냥따라 갔지.

하루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해서 은근히 뱀머리에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이쯤에서 뱀머리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말하면 창피할 것 같았어. 그래서 더 당당하게 앞으로 나갔지. 그런데 그 앞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불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 "지금 우리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있어." "뭐야? 정말이야?" 흠뻑 뒤를 돌아본 뱀머리가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말을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 "뱀머리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자기에게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뱀꼬리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만 불에 타 죽고 말았어. 정말 어리석었지?

꼬리는 처음으로 앞서 나가니 신나서 들썩들썩하며 걸어갔어. 그런데 숲이 좀 넓어?

건강상식

암의 예방



김내과 의원 원장 김옥희 김내과 의원 (053)792-5115

현대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70세 이상으로 연장 시켰고 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은 치료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인간은 암에 대해 속수무책인가. 그렇지 않다. 모든 암은 조기 발견 될 경우 완치되거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며 예방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예방법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이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 시키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암이 발생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는 음식에 의한 예방법이다. 주위에는 암을 예방한다는 많은 건강 식품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과학적 증거가 안 된 일시적 유행식품에 불과하다. 그것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은 조리과정 중에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직접 불

에 굽거나 기름에 튀길 경우 발암 유발위험이 크고 삶아서 익힌 경우가 가장 안전하다고 한다. 통조림 음식은 개봉 즉시 다른 그릇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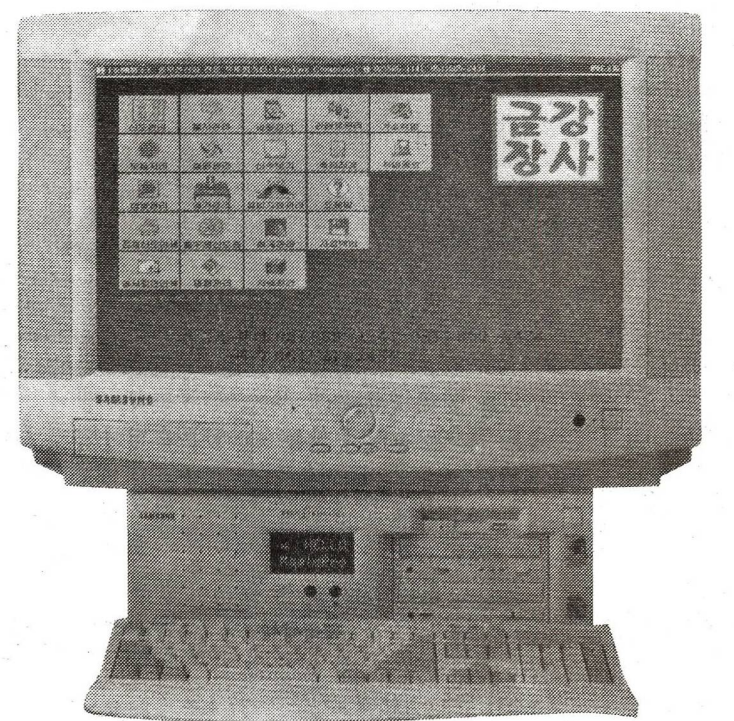
셋째는 금연이다. 담배는 A급 발암 물질을 20가지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폐암 및 후두암의 원인 인자로 확실히 되고 있다. 따라서 담배는 더 이상 기호품이 아니라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넷째는 적당한 운동이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위암의 경우 연 1회의 내시경 검사로 조기 위암 단계에서 발견이 가능하다. B형 간염 백신은 간암 예방의 지름길이며 연 1-2회의 부인과 검진 역시 자궁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한 가족 구성원 중 암이 발생할 경우 정신적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함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같은 방법을 꼭 실천해 볼만하다.

컴퓨터가 알아서 척척 !!!

“금강”으로 신도관리를 하고 부터 신도가 자꾸 늘어난다는데 이유가 뭐지?
싹~ [정말 쉽데!] [진짜 똑똑하데!] [뭐든지 다 된다는데!] [10년이 넘었대!] [신도들이 좋아한다]

“金剛 for Win”은 밀레니엄버그(Y2K)를 완벽하게 해결한 Window 95,98용 중무, 신도, 재무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같겠지 하지 마시고 꼭 “금강”과 비교하십시오.



전문역학 프로그램 “四柱大典”을 개발하였습니다.
명리, 육효, 기문둔강, 귀곡산명, 자비두수, 당사주, 토정비결,
성명학 (작명, 감명), 방위학, 택일, 궁합 등 生年日時만 넣으면
1~2초 내에 감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많은 자료가 들어 있어 도움이 됩니다. (별도판매)

승가대, 강원도에 교육용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 (02) 585-1141 부산 : (051)505-2434 제주 : (064)721-2434

“금강장사 for Win”은 종합 중무, 신도관리 프로그램으로
축원, 인등, 불사, 연등, 일정, 영가, 기제사, 49제, 회비수납, 생일관리,
명함관리, 관람교관리, 중무(사찰)전용 회계관리, 중앙신도등 발급관리,
설법자료정리, 신수보기, 불교대학 관리, 우편물, 연등표, 인등표, 영서,
위패, 생일축하편지, 법문자료, 기부금 증명서 등 1,200여 출력양식,
LAN기능, 화상축원 기능, 자체 전자신도증 발급
자동으로 신도에게 전화걸어주기, 인터넷 연결(전국800여 사찰 사용자)

대자연과 호흡하며 호연지기를 ...

'제9회 여름학생수련법회' '제5회 어린이수련법회' 성료



▲ '물놀이는 즐거워...' 지난 수련법회중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열렸던 '어린이·청소년 여름수련법회'가 올해에도 본종 수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수련법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의미있고 보람찬 일정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 어린이 법회가 처음으로 본종 수련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점은 앞으로 어린이법회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그동안 어린이법회의 경

그러나 다소 아쉬웠던 점은 당초 계획이 '어린이·고등학생법회'와 '중학생법회'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말 발생한 '췌담' 화재 참사로 인해 참가신청자가 격감, 일정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참가인원감소'에 대한 예상과 확인이 사전에 충분히 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는 없다. 인원감소에 따라 당초 계획이었던 7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중학생수련법회'는 29일~31로 연기, '어린이·고등학생수련법회'의 일정과 함께 같은 날 개최되었다. 이로인하여 공백이

우는 안전사고와 교통편의를 고려해 매년 도심에서 개최되었으나 이번에는 '자연과 함께'라는 취지로 충북 괴산의 본종 수련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것. 의외로 어린이법회와 종단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생긴 26일~28일에는 전국 스승님들의 휴양 및 수련회 일정으로 변경 실시됐다. 교화에 항상 비쁜 생활을 해온 스승님들에게 휴식을 가질 시간 여유가 없었던게 사실. 그래서 스승님들에게는 이번 수련회가 더 좋은 시간이 됐다.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 '어린이 청소년수련회'는 공동진행과 함께 프로그램 이원화를 통해 보다 더 다양한 행사가 됐다는게 대체적인 평. 학생법회를 진행했던 윤승호 교무는 "공동으로 진행을



▲ 윤승호 교무



▲ 김혜경 교무

하게 되니 서로가 부족한 점을 메꿔줄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이러한 진행체제를 기본으로하여 진행자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가미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양성에 종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계뉴스 불교문양을 현대의상에 접목

이기향교수, 『영취산의 환희』 의상발표회, 지난 9월 7일, 성황리에 성료



▲ 이기향 교수의 '미술의상전, 이대학로 '목금도갤러리'에서 열렸다

불교문양과 인체의 환상적 만남! 미술의상 작가 이기향 교수(한성대 예술대 의상생활학부)가 영산회상의 극적인 이미지를 승

화시킨 작품전 '영취산의 환희'를 지난 9월 7일 대학로 문화공간 3층 '목금도갤러리'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전시회에는 나비무 의상, 조형화한 불보살상, 불교전통의 단정문양 등을 가미하여 전통 종교복식과 현대의상을 접목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총 20점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는 옷이라는 생활의 조형언어를 통해 현대한국문화 속에서 조

형성이 뛰어난 전통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기향 교수

전시회를 준비했던 이기향 교수는 지난번 본 종단의 '승자자 법의(法衣) 개선'과 관련해 지문을 해준 적이 있으며, 지난번 의상발표회도 총지중보3호(1996. 3.18일자 8면)에 소개된바 있었다.

종단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 나날이 늘고 있다

지난 해 연말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올초에 개통된 사이버법당 불교총지중 홈페이지(http://www.chongji.or.kr)가 8월 말 현재 조회횟수 2788회를 넘기고 있다. 홈페이지 방문목에 기록된 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불법홍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인구가 지난 7월말 현재 500만명을 돌파하였고 전세계 인터넷이용자들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컴퓨터통신이라는 사이버공간의 위력은 하루가 다르게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국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하

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업의 광고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인터넷상의 광고는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신의 기업광고에 접속만 하여도 일정량의 경품은 물론 최근에는 아예 현금을 주는 서비스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상에서 전문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서비스'라는 신종사이트는 각광받는 사이버사업으로 등장하였다. 최근 법률관계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회원(무료)으로 등록만 하여도 선착순 10만명에게 시가 7, 8만원의 법령시디를 무료로 배달한다는

광고가 나가자마자 순식간에 폭주하는 접속으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만큼 생활에서 인터넷의 장악력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이다.

타종단에 비해 홈페이지 개통이 뒤지지 않는 우리종단의 사이버법당은 개통 이후 적절한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종단발전을 위한 총괄기획단의 구성 이후 기획단의 책임아래 전체적인 유지보수를 계획하였으나 그 시기가 점차 미루어져 현재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센터에 후원의 손길 잇달아

종단 산하 복지센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거동이 불편하여 시설에 직접 올 수 없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 치료 및 가정봉사를 하고 있다. 현재 매주 내분에게 제공되고 있는 이 봉사는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일 점심 때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있으며,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의 후원으로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에는 무료로 파마와 컷트를 해드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복지사업의 성과

사회복지 실천사례 발표회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지난 9월 3일

본 종단 본산에 사무실을 둔 '종교사회복지연구소'의 2차 월례발표회가 지난 9월 3일 오후 7시 본 종단 총지중대학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는 이호경 양천노인종합복지관 부장의 '교회의 사회복지실천 사례와 발전과제', 이계운 전국장애아전담보육시설협의회회장의 '발달장애인의 불입시술에 대하여'가 발표되었다. 이호경씨는 '목민교회의 사회복지현황'을 통해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이계운씨는 "정

황금유대를 위한 한·중·일 불교대표자회의 10월 중순 일본에서

지난 93년 11월 중국불교협회 회장 조박초선사의 제안으로 발족한 한중일불교우호교류를 모태로 해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삼국불교대표자회의가 10월 13일부터 사흘동안 일본 경도에서 열린다. 95년의 중국북경대회와 96년 서울대회에 이어 97년 일본경

도에서 성황리에 열렸던 이 회의는 삼국의 불교계를 넘어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교 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기로 인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회의가 되고 있다.

이번 경도회의에 한국불교대표로 우리 종단의 총지화 통리원장,

효강 법장원장을 비롯하여 종단 협회원 종단의 대표자와 관계자 40명이 참석한다. 종단협회는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 1차 간담회를 가졌고 9월 14일에는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살며 생각하며

사사로움 감정과 공(公)

중국 조나라의 장군 염파는 적국 제나라와의 전투에서 항상 승리를 기록했다. 그는 그 공으로 조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자리에 인상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염파는 그 인상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공공연히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나라를 지켰다. 그런데 인상은 한갓 말재주로 어찌 나보다 더 위자리에 앉아 있던 말인가! 내 언제든 거리에서 그를 만나면 단단히 창피를 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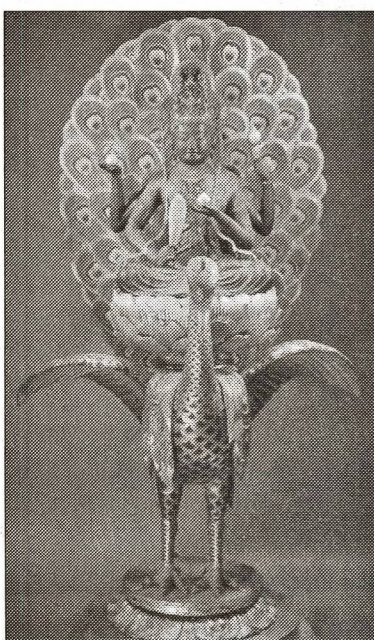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날 염파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다. 그때 맑은 편에서 인상의 수레가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인상은 하인에게 명하여 수레를 급히 옆길로 돌려 염파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도록 했다. 그러자

인상의 부하가 이렇게 말했다. "염파 장군은 승상을 욕하고 다니는데, 어찌 그를 두려워하여 피하신단 말입니까?" 그러자 인상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내 어찌 염파 장군이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저 강대한 제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염파 장군과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둘이 싸워 서로에게 해를 입힌다면 이 나라가 장차 어찌 되었습니까? 사사로움 감정보다는 나라의 안위가 더 중요한 것이다."

훗날 인상의 말을 전해들은 염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인상을 찾아가서. 그리고 둘은 깊은 우정을 맺게 되었다. 작금의 우리들, 특히 정치인들이 곰씹어 봤으면 하는 고사(古事)이다. - 김홍배 연구원

일본 밀교문화 답사기

다양한 밀교문화를 답사



▲ 중문 목조 공작명왕상 (고야산 금강보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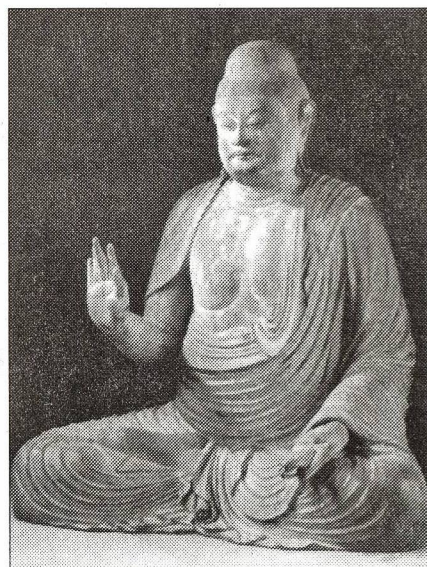
경북대 최성규 교수의 답사일기를 통해 6박 7일간의 일본 밀교 문화답사 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인 동본원사를 둘러보았다. 법당관에서 밀교와 만다라 관련책을 구입한 뒤 역시 정토진종의 양대 총본산인 서본원사로 갔다. 서본원사에서는 보경님의 노력으로 관음이 금지된 문화재(건축, 회화) 등을 사진촬영은 물론 나카오카 스님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며 후원까지 모두 둘러보았다. 저녁 6시 40분 우리가 잠잘 곳인 야쓰에 도착해 정각사로 감. 정각사 주지인 오가와 선생은 보경님이 공부한 용곡대의 이사겸 교직원이다. 오가와 선생님 가족의 환대와 함께 저녁을 잘 잠자리에 들었다.

1999년 8월 18일
아침 5시 40분에 일어나 세면 후 아침 침례에 참석하고 공양을 마친 뒤 다시 교포 대극 대학으로 갔다. 나카가와 고사부로 교수님과 면담 뒤 사주시는 점심을 먹고 헤어져 팔판신사(八坂神

社)를 돌아 청수사로 갔다. 청수사에서 참배를 하고 단정문양 등을 살펴본 다음 국보 33간당에 도착하니 오후 4시가 되었다. 33간당에서 밀교적 도상으로 표현된 천수 관음상의 지물들을 보고 나와 10분 정도 걸어서 풍국신사(豊國神社)에 갔다가 이츠(耳塚)에서 분향하고 다시 정각사로 돌아왔다. 저녁은 법전방에서 지난 7월 한국에 왔던 주지 스님들의 준비로 온갖 종류의 일본 음식과 신도들이 불전에 올린 공양물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정각사로 돌아왔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1999년 8월 19일
아침을 먹고 히포네에 도착하니 오전 8시 45분, 잠시 커피를 마시며 망중한을 즐겼고 스케치도 두어장 할 수 있었다. 성(城)과 정원을 돌아보고 보



▲ 일본 국보 석가여래좌상(명안시대 9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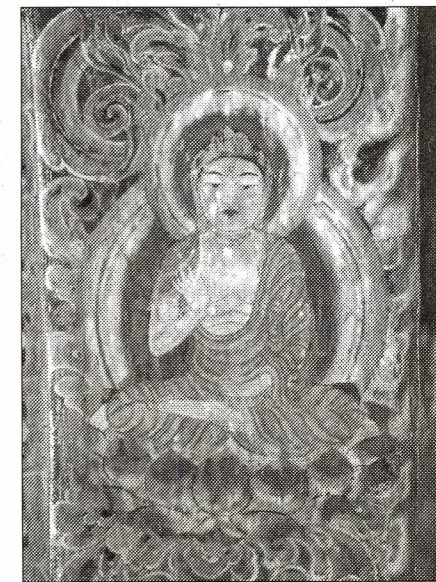
경님이 일본에서 처음 인연된 스승인 覺正(다카하라 가쿠쇼)선생이 계시는 서각사에 들어서 인사를 드렸다. 선생님께서는 환대와 함께 저서를 두 권씩 나누어 주셨으며 우리가 온 목적을 말씀 드렸더니 동사(東寺)갈 때 소개장도 써주시겠노라며 호의를 보여 주었다. 오후 3시에 용곡대에 도착하여 용곡대 도서관에 비정된 만다라 3점을 자세히 보고 기록을 했다. 다시 서본원사 앞의 일행사에 가서 법당 내부 장엄 등을 살펴보고 사진 촬영도 해 두었다.

1999년 8월 20일

동사(교왕호국사)와 지적원에 가서 법당 내부의 구조와 장엄을 둘러 본 다음 오오사카에 있는 조계종 일본 총본산 보현사를 들렀다.

1999년 8월 21일

나라에 있는 동대사에 갔다가 정창원을 지나 나라국립박물관에 가니 마침 여인교야 실생사 특별전을 하고 있었다. 동사와 지적원의 만다라가 모두 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각종 만다라 전시되고 있었다. 사진 촬영과 함께 자료가 될 만한 도서를 구입한 뒤 흥복사에 둘러 밀교



▲ 일본 국보 약사여래입상(명안시대 9~10세기)

불상과 만다라를 보고 곧장 법문사로 갔다. 법문사에서 보경님의 대학 선배라는 스님의 배려로 자세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1999년 8월 22일

오오사카 보현사를 나와 기대했던 고야산에 12시쯤 도착하였다. 통리원장님과 법장원장님도 다녀 가셨다는 大圓院에 가니 마침 법회가 진행중이었다. 내전에서 범주스님을 비롯한 3명의 스님이 의식을 집전 중이었고 신도는 의전에서 동참하고 있었다. 법회 참관 뒤 법구와 만다라가 그려진 내부 구조를 살펴 보았다. 다시 영보관에 가서 금강봉사의 양계 만다라와 종자 만다라, 근본대당의 내부 등을 빠짐없이 둘러보고 역시 자료가 될 만한 도서를 구입하였다. 보현사에 돌아오니 저녁 8시 50분이었다.

1999년 8월 23일(마지막날)

보현사에서 아침 공양을 마치고 주지 태연 스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니 다음 일정인 사천왕사까지는 사중의 승합차를 내어 주셔서 편히 가게 되었다. 덕분에 다소의 여유를 가지고 사천왕사의 가람배치와 전각 내부의 벽화, 특히 인상적이었던 오층 보탑안의 현대식 만다라 등을 둘러 보고 간사이 국제 공항에서 서울행 오후 3시 10분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인물탐방

풍물과 무용 속에 혼신의 열정과 깊은 신심이...



전통무용·풍물 강사 조화연 선생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풍물과 전통무용 강좌 시간이면 유독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신다. 풍물교실과 전통교실을 이끌고 계시는 조화연 선생님. 올해 연세가 일흔한 살이 되었는데 하시는 일에 대한 열정은 젊은 사람 못지 않다. 할아버지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시는지 알아보았다. <편집자주>



▲ 춤사위에 열정이 배어 있다

- ▶ 국악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가 있다면요?
일정시대에 그냥 무작정 무용이 좋고 풍물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요.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소만은 우리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7살 때부터 쭉 그 매력에 빠져서 여태까지 하게 되었네요.
- ▶ 총지중보에 강습소를 열게 된 까닭이 있으셨어요?
여기 이상숙 보살이 내 제자야. 이 사람이 총지중보에도 많은 보살들이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요.
- ▶ 많은 곳에 활동하러 가시나 봐요?
뭐, 내세울 것은 없어요. 청음 농아 복지회관에 있는 청음 농아 극단에서 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복지관에 나가 우리 무용과 악기를 가르칩니다. 또 우리 동네와 주변 동에서도 우리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호응이 좋아서 나도 기분이 좋아요.
- ▶ 그동안 많은 공연을 하셨을 텐데요?
'혼의 소리'의 공연과 안무를 했어요. 그 작품으로 전국 순회공연도 하고 그 전에도 한일 문화교류 초청공연도 하고 초청 강사도 하면서 바쁘게 살았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공연이라면 언제든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또 총지중보에서는 짬짬이 우리가 배운 것을 보이기도 하지요. 7사단 점등식에도 우리가 갔고 봉축행사 때도 우리가 길놀이로 했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것도 가르치고 또 이 사람들과 공연도 할 생각입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할아버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시는 보살님들의 춤사위가 예사롭지 않았나.

BBS 소식

『툼비니 동산』 우수작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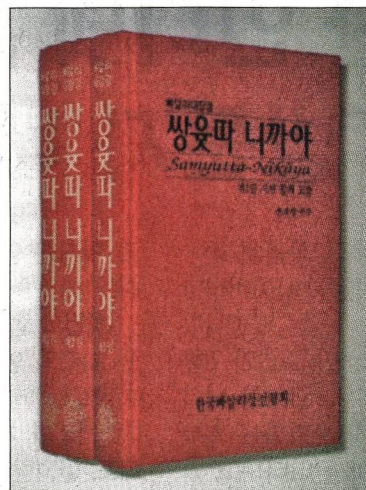
‘한국방송대상’에서 우수작품상 수상

블로그방송 어린이 포교프로그램인 ‘툼비니 동산’(담당PD 한지윤)이 제26회 한국방송대상 어린이·청소년 라디오 부문 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매주 일요일 저녁 7시10분부터 50분간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심사과정에서 ‘탁 터놓고 얘기해요’, ‘노래로 여는 부처님 세상’, ‘우리들의 동화나라’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새싹 불자들의 포교 효과는 물론 종교방송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프로그램으로서 방송 포교의 역할을 극대화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방송의 날인 지난 9월 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간·안·내

남전 잡아함경 『쌍웃따니까야』 출간



스리랑카 빠알리불교대학 한국분교 교수이자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 회장인 전재성 박사가 10여년의 원역 끝에 남전(南傳) ‘잡아함경’에 해당하는 『쌍웃따니까야』 3권을 한글로 번역했다. ‘쌍웃따니까야’는 불교의 법상조직이 체계화 되기 이전의 경전군을 모아 놓은 것으로 초기경전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1권은 열반에 이르는 중도적 교설, 2·3권은 연기법에 대한 부처님과 제자들의 담론을 담고 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계, 전재성, 가격: 1권 25,000원, 2·3권 20,000원)

전시의 장

창작 찬불가 공모

정부와 불교계가 불교음악 진흥에 앞장섰다. 제2회 창작 찬불가 공모전이 그것. 조계종과 문화관광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창작 찬불가를 공모기로 했다. 응모자격

은 기성 및 신인을 포함 불교음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서교부는 11월29일부터 12월 24일까지며 응모기간은 12월 1일부터 24일까지이다.

제3회 종교미술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제3회 종교미술제’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게 된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등이 참가하는 종교미술제는 서양화 동양화

판화 등 회화와 조각 서예 사진 등의 출품작들이 전시된다. 종교미술제는 음악·회화·화술제나 등 각 부분별로 실시되는 종교예술제의 하나로서 종교간의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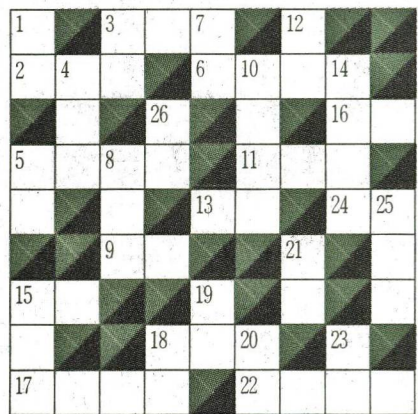
복제인간에 대한 불교적 시각

극단 ‘유시어티’가 펼치는 ‘철안부터’

불교적 세계관으로 복제인간의 문제를 다룬 연극이 올 가을에 선보일 예정이다. ‘99 서울연극제’(9월1일~10월17일)에 국내초청작으로 선정된 ‘철안(鐵顔)부터’가 바로 그것. 벌써부터 연극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이 연극의 시간적 무대 배경은 부처님열반 3천년 후인 25세기, 즉 지금으로부터 500년후쯤의 서울. 자원고갈로 도시는 황폐되고 인류의 문명은 퇴행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모태에서 태어난 인간 보다 복제인간이 온통 세상을 지배한다. 복제인간이 아닌 진짜 인간의 부활을 꿈꾸는 늙은 노인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

는 복제인간 철안족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한 와중에 미래불이 출현하게 된다는 내용을 기본 줄거리로 하고 있는 이 연극은 쓰러져가는 인간사회에 불교적 신화가 되살아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연극은 유인촌, 권성덕, 방은진, 이남희, 홍경인 등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스타급 연극배우들이 대거 참여하여 정상급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10월8일부터 11월7일까지 서울강남구 청담동 ‘유시어티’에서 열리게 되며, 공연 시간은 평일 오후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이다. 단체관람문의 (02)3444-0651~4

총지 퍼즐마당



- 가로글씨
- (2)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짐승. 지혜의 상징. (3)대장경을 안치한 곳. 합천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 보존하는 전각. (5)법을 묻는 공덕. (6)반야심경에 나오는 말. 실상과 상즉하여 둘이 없다는 뜻→공즉시색. (9)여든여덟 살. (11)모든 번뇌를 벗어나 부처가 됨. (13)누운 부처. 불상. (15)우리나라 고유곡. (16)사물의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

는 불여실지견을 말함. **을 밝히고, (17)여러 곳으로 스승을 찾아 도와 수행을 하러 다니는 승려들을 가리키는 말. (18)도리전에 있는 단 영액. 한 방울만 먹어도 온갖 괴로움이 사라지고, 죽은사라이 살아남. 부처님의 교법이 중생을 잘 제도함에 비유함. (22)반봉 건적인 합리주의 사상. 이성의 계몽을 통해 진보와 개선을 꾀한 주의. (24)마음을 낮춤.

- 세로글씨
- (1)절이나 건물의 벽, 기둥, 천장 같은 데 그림이나 무늬를 그린 채색. (3)판 아들→말자. (4)보살이 중생을 불법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네 가지 행위. (5)지혜의 보살. (7)문학작품을 무대 상연, 방송, 영화 등에 알맞도록 고쳐 쓰는 일. (8)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리는 쌀. (10)살아있을 때, 이 육신 그대로 부처가 되는 것. (12)감이 익으면 이것이 된다. (14)공후인. 님아, 님아, 저

물을 건너지 마오. (15)승려, 시인, 독립운동가. 호는 만해. (18)가지과에 딸린 풀의 땅속 줄기로 생긴 것. 식용. 고구마와 비슷. (19)겨울 난방을 위한 기구의 하나가스, 전기 등을 쓴다. (20)부처님이 제정한 계법을 받는다. (21)부처님의 10대제자.다문제일 부처님의 사촌. 아난다. (23)왕의 딸. (25)산삼을 캐는 일을 하는 사람. (26)깊은 산에서 남. 식용. 도라지처럼 생김. 뿌리에 독특한 향.

◆ 지난호 총지퍼즐 정답자

- 김성민(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마소정(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 10월 31일까지 총지중보 퍼즐마당 담당자 앞으로 관제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중보 편집원내 총지중보사

▼ 지난호 총지퍼즐 정답

유	수	미	산	린	원
마	당	낙	화	각	기
거	기	각	각	각	림
사	기	수	수	리	리
우	란	분	전	참	람
우	란	분	전	참	람
마	다	장	어	채	훈
리	기	간	다	라	

의상발표회작품

‘불교와 현대의상의 만남’

- ‘영취산의 환희’ 이기향교수의 미술의상전



▲ ‘연꽃 향기처럼...’ ▲ ‘연꽃 향기처럼...’ ▲ ‘진흙 속에 핀 연꽃’

天然玉石 귀빈자리



천연옥석 귀빈자리는 원색의 천연방사능을 높이기 위해 천연옥광석을 원형으로 박아 특수공법으로 222개를 손수 얹어 방사능을 막아줌으로써 보석감정을 받은 최고의 제품입니다.

세계적용

의 효능 옥(玉)은 주로 왕실에서 사용하던 귀한 것으로 여름에 시원하고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뛰어나며, 기를 튼튼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면역성을 높여주고 기력회복을 예방한다. 또한 옥의 분해가 용이하므로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고 살균작용 및 노폐물 배출로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 따라서 옥에서 발생하는 빛은 우리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옥비녀, 옥배, 옥가락지, 옥팔찌 등 건강 장신구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 건강을 유지하는데 옥의 특별한 효능은 이미 동의보감(東醫寶鑑)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 등 옛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天然玉石 귀빈자리

최고의 잠자리를 위해 기술과 고집으로 만든 최고의 제품!!

이런분들께 꼭 권해드립니다

- 잠을 자고나도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깊은 잠을 못자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수험생이나 직장인
- 나이드신 부모님, 연약한 아내에게
- 평소 고마수신 분이나 존경하는 분에게

미나건강생활 Hana Health Life 본사: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3-12 청우빌딩 2층 TEL : (02)558-0040(대) FAX : (02)558-0063



▲ 보석감정서 ▲ 침대위, 안방, 거실등에서 사용하세요~